‘전주 관광택시’ 관광 품격 높인다

전주시 본격 운행, 주요 관광지 명품해설… 한옥마을 중심의 전주관광 외연 확대 기대

전주시가 2000만 전주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 준비한 전주 관광택시가 본격적인 운행에 돌입한다.

이를 통해 전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택시를 타고 주요 관광지를 돌며 명품해설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전주의 명소와 관광자원을 소개함에 따라 한옥마을 중심의 전주관광의 외연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27일 전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전주 관광택시 운행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관광택시 발대식을 가졌다.

전주 관광택시는 개인택시 17대와 법인택시 3대 등 20대가 시범운행 되며, 시는 향후 이용객의 수요에 따라 관광택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택시 운행자들은 평상시에는 일반택시영업을 하면서 사전예약을 통해 관광택시가 배차되면 간단한 관광가이드를 겸한 관광택시로 운행된다.

전주 관광택시 이용 예약과 배차, 운행자 관리 등은 전주시 개인택시 단위조합에서 맡게 되며, 사전예약 전화(063-274-5957)로 문의하면 된다.

추천코스는 3시간코스 3개, 5시간코스 5개, 테마코스 8개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코스는 이용자가 관광지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3시간 5만원 5시간 8만원, 추가요금은 시간당 2만원이며, 주차요금과 입장료 등은 별도이다.

이날 발대식에서 선서문을 낭독한 김진묵 운전자는 “평소 문화관광분야에 관심이 많았는데 택시영업을 하면서 관광가이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전주 관광택시가 전주 관광을 대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시는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와 2년 이내 불친절 민원 신고를 받지 않은 자 등 일정자격을 갖춘 택시 운전자를 모집해 서류평가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의 관광택시 운행자를 선발했다.

이들은 친절, 관광가이드 매너, 전주 관광정보 등 30시간의 사전교육을 모두 성실히 이수했으며, 지난달 여행 전문가와 전주시외 거주자 40여명 대상 ‘무료체험 시범투어’에서도 호평을 받기도 했다. /김민근 기자

부하에 대리사격 경찰 간부 적발

인사고과를 위해 부하에게 대리 사격을 시킨 경찰 간부가 적발됐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익산경찰서 소속 A경감이 부하 직원에게 대리사격을 시켜 현장에서 훈련을 진행하던 감독관에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난 후에 해당 간부를 불러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해당 사실이 감독관에 의해 감찰부서에 보고됐다”며 “A경감과 함께 대리사격을 한 부하직원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덕진경찰, 추석 전 청렴캠페인

덕진경찰서는 27일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과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해 검소하고 건전하게 보내기 위한 청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청렴동아리 파란바람 회원들의 주도로 공직자로서 검소한 추석명절 보내기에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음료를 나눠주며 동참을 호소했다.

함현배 덕진서장은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청렴동아리를 중심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아담한 ‘배’ “관상용입니다”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원이 관상용 배와 일반 배(왼쪽)를 비교해 보이고 있다. 농진청은 조경용 원예 품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상용으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채소와 과일 품종을 개발해 본격 보급 중이라고 밝혔다.

재량사업비 의혹 21명 기소… 수사 마무리

전주지검, 최진호 · 정진세 도의원, 고미희 · 송정훈 전주시의원 추가 불구속 입건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시작한 재량사업비 의혹에 관련해 10개월만에 현직 지방의원 4명을 추가 기소하기로 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주지검은 27일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최진호, 정진세 도의원과 고미희, 송정훈 전주시의원 등 4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진호 도의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2차례에 걸쳐 1,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진세 도의원은 2015년 8월과 지난해 6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의료용 온열기 설치사업에 편성해주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미희 전주시의원은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2달 간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준 대가로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정훈 전주시의원도 지난해 8월 예산을 집행해주고 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것으로 재량사업비 비리 관련 기소된 인원은 전 · 현직 도의원 4명과 전주시의원 2명, 브로커 등 27일 추가 기소된 4명을 포함해 모두 21명이다.

이 중 강영수 전 도의원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재량사업비 비리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200만원,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3 · 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다울마당 개최… 조사 · 기본방향 · 세부사업 등 논의

전주시가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전주에서 진행된 3.1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에 나서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27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사업을 추진을 위한 다울마당을 개최하고, 전주에서 펼쳐진 3.1 운동에 대한 조사와 다양한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다울마당’은 학계, 유관 기관 · 단체, 언론, 청년층을 망라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과 세부사업 등을 논의 · 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지난 1919년 당시 전주에서 펼쳐진 3.1운동은 일부 문헌에 전개 과정 등이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관련 인물과 유적 등에 관한 연구가 부족해 체계적인 조사와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다울마당의 운영을 통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전주지역 3.1운동에 대한 조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고귀한 3.1운동 정신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관련 자료를 발굴하는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주지역에서 펼쳐진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온 인종익(印宗益)이 전주 천도교구실에서 ‘독립선언서’ 수백 장과 독립운동의 행동 방법을 전달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개신교계는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가 중심이 돼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3월 13일 기전여학교와 신흥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150여명이 남문시장에서부터 만세시위를 시작으로 4월초까지 근 20여일간 지속됐다. 전주에서 시작된 3.1운동은 이후 김제와 부안, 옥구, 익산, 임실, 정읍 등 전주 인근 지역의 3.1운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철수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3.1운동 100주년 사업이 전주시민의 자긍심과 역사의식이 성장하는 정신적 토대가 되도록 힘쓰겠다”라며 “3.1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일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군산해경, 추석 연휴기간 특별경비 돌입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경이 특별 경비에 돌입했다. 이번 특별 경비는 선박 안전과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치안질서 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30일~10월 9일까지를 특별경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치안질서 유지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 중점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올 추석은 대체공휴일 시행으로 최장 10일까지 쉴 수 있어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 이외에도 연휴기간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해경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운항 중인 유람선의 점검활동과 경비함정을 동원해 근거리 안전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비상상황에 대비한 출동대기 함정을 추가로 지정하고, 수상레저 활동이 많은 해역에는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장비를 상시 배치할 방침이다.

특히, 소형 선박을 이용해 섬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에는 출항을 통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 명절 분위기를 틈타 불법조업을 노리는 중국어선에 대한 감시 ▲ 고향을 찾지 못하는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과 폭력행위 예방 ▲ 고가의 선박 장비 절도행위 단속에도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북경찰청, 수사 간부 대상 ‘미디어 트레이닝’ 교육

전북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은 27일 전북경찰청 5층 소회의실에서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 기능 간부 15명을 대상으로 이귀주 MBC 아나운서를 초청해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미디어 트레이닝’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언론에 전달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하게 해 국민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브리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인별 동영상 촬영 및 교정지도를 반복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귀주 아나운서는 “부담감이 많을 수밖에 없는 브리핑 현장에서 발표자의 표현능력과 태도 등에 따라 상황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며 “금일 실시한 발음교정과 카메라 대처능력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정확한 의사 표현으로 국민 신뢰도 향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